

# 육조혜능 “마음에는 본래 때 묻힐 자리 없다”

## 육조께서 조사가 되다

배후가 또 몰았다.  
“육조께서는 경전도 읽을 줄 몰랐는데, 어떻게 법의를 전수받고 조사가 되셨습니까? 신수상좌께서는 오백 대종의 수좌로서 교수사(敎授師)의 임무를 맡아 32부의 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 왜 법의를 전수받지 못하였습니까?”

황벽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신수스님에게는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위법(有爲法)으로서, 닦아서 증득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 것이었다. 그러므로 오조께서는 육조에게 부촉하신 것이다. 당시 육조는 다만 묵묵히 계합하여, 여래께서 은밀히 전하신 깊은 뜻을 체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분께 법을 전했던 것이다.”

‘때가 묻었으면 부지런히 털고 닦아야 한다.’는 신수스님의 계송은, 마음이 모양 있는 것이라고 본 유위법의 입장이었다. 반면에 ‘마음에는 본래 때 묻힐 자리가 없어서, 털고 닦을 것도 없다.’는 육조스님의 계송은 모양을 여윈 무위법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 둘은 공(空)을 ‘소화 못하고, 하고’의 차이여서, 전자의 신수스님은 조사 법의를 전해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육조스님도 오조스님 회상에서 8개월간 방아를 찧으면서 스스로 돌아킬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방아를 찧기는 다 찧었으나, 키질만 남았습니다.’는 육조스님의 말을 듣고, 이제 전법의 때가 이르렀음을 안 오조스님이 밤중에 불러 《금강경》을 설해주었다. 육조스님은 그 자리에서 확然大悟 하고,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고 고백했던 것이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법이란 본래 법이어서 따로 법이랄 것이 없어, 법 없는 법을 법이라 한다. 이제 법 없는 법을 부촉하니, 법이니 아니면 하는 것들이 어찌 참다운 법일까 보냐?’ 이 뜻을 알아야 출가자라 할 수 있고, 비로소 참다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법승 삼보라고 해서, 계를 받아 승단의 일원이 된 출가자에게 귀의할 것을 가르친다. 하지만 선의 입장에서, 눈을 떠야 비로소 출가자라 할 수 있다. 실령 머리를 깎지 않고 마을에서 살더라도, 안목이 열렸으면 출가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본자리에서는 법이 있고 없어도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계를 받고 말고에 상관하겠는가. 그렇지만 깨달음에 집착해 인연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몸을 지니고 쓰는 입장에서 인과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믿지 못하였다면, 어찌하여 도명(道明) 상좌가 대유령 꼭대기까지 육조를 찾아서 쫓아왔겠는가. 그때 육조께서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구하려 왔는가? 옷을 구하는가, 아니면 법을

##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26)



범이사 주지

### “때 묻었으면 털고 닦아야”

### 신수계송은 유위법 입장

### 무위법 육조계송과는

### ‘공을 소화 했다 못했다’ 차이

### “법이란 본래 법이어서

### 법없는 법을 법이라 한다”

### 마을에 살더라도

### 안목 열렸으면 출가자 같다

### 육조 “선도 악도 생각 말고

### 부모가 낳기전 본래 면목

### 나에게 가져와라”

### 도명 “마치 물을 마셔보고

###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 아는 것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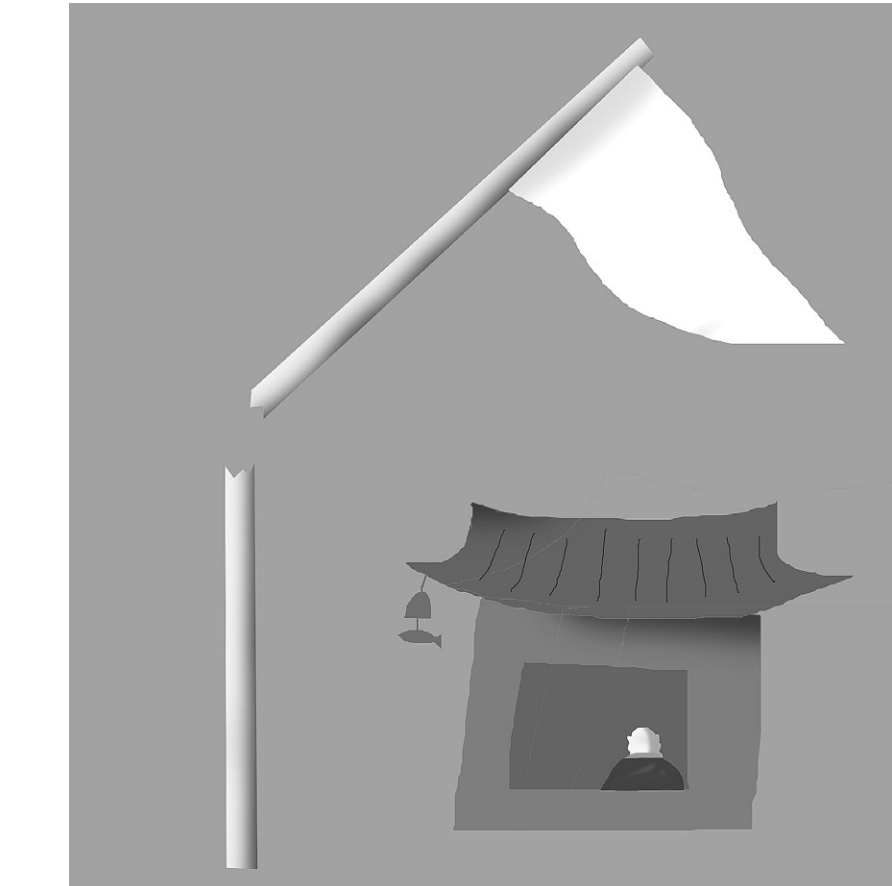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구하는가?” 하니, 도명 상좌가 “옷이 아니라 오로지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잠시 마음을 거두고, 선악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하자, 도명 상좌가 말씀을 받았다. 그러자 육조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부모가 낳기 전, 도명 상좌의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와라.”고 하셨다. 도명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묵연히 계합하고 문득 절하며 말씀 올리기를, “마치 물을 마셔 보고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조스님의 문하에서 30년 동안 잘못 공부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날의 허물을 알았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육조께서 “그렇다.”고 하셨다. 이제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고 하심이 언설에 있지 않음을 알 것이다.

도명 상좌의 본래 이름은 혜명(慧明)이다. 깨달은 이후 육조 혜능스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스승의 ‘혜’자를 피해 도명(道明)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도명은 원래 5품 장군 출신으로, 오조스님의 의발이 없어지자 남보다 한발 앞서서 육조스님을 쫓아왔다. 육조스님은 이를 보고 가사와 발우를 바위 위에 올려 놓고 몸을 굽혔다. 도명은 가사와 발우를 가져가려다가 한 생각 돌이키고는 가르침을 구한 것이다. 법은 말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다. 비록 도명이 처음부터 법을 구하는 마음으로 육조스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 기연을 놓치지 않고 법을 청했다. 마침 스승이 한마디 이르는데 바로 계합

하여 ‘이것이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린 것이다.

어찌 듣지 못했는가? 아난이 가섭에게 묻기를 “세존께서 금한가사 말고 달리 전하신 법이 있었습니까?” 하니, 가섭이 아난을 불렀다. 아난이 대답하자 가섭이 말하기를, “문 앞의 찰간(刹竿)을 꺾어버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조사의 표방이다. 매우 총명한 아난이 30년 동안 시자로 있었지만, 다문지혜(多聞智慧)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천일 동안 배운 너의 지혜는 하루 동안 도를 닦느니만 못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다. 만약 도를 닦지 않는다면, 물론 방울도 소회시키기 어렵다 하리라.

가섭은 아난이 “세존께서 전하신 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데 대해, 이런 저런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문 앞의 찰간을 꺾어버려라!”고 했다. 아난은 30년간이나 부처님 시자로 지내면서 수없이 법문을 들었지만, 끝내 깨지지 못했다.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야 사형인 가섭에게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2대 조사가 되었다. 배후도 황벽스님을 인연해서 깨달았고, 그 돈오한 힘을 바탕으로 이런 말들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돈오는 진실로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배후는 황벽스님을 만나자마자 눈을 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직 걸리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황벽스님을 찾아뵙고 정성을 다해 묻고 기록해두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이미 공부를 맛보았지만, 아직도 미진한 게 남아있는 입장에 있는 학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록이라고 할 수 있다.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 깊은 선정의 즐거움을 버린 것은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서이다.

(법화경)

### 언어의 비극

언어의 의미는 사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사전이 다 답을 주 없는, 또 다른 낱앙스를 언어는 띄게 된다. 현실의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좋은 말이라도, 현실의 사건으로부터 오염된 후로는 그 사상을 기피하게 된다. ‘유신’이라는 말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지 모르겠다.

우리 불교에서도, 이러한 비극의 언어 들은 한 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사판(事判)’이다. 현대 한국불교사의 최대사건인 ‘정화’를 겪으면서,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버린 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화’는 ‘취척=사판 vs 비구=이판’이라는 구도 하에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그 구도는 자연스럽게 ‘사판=열등, 이판=우등’이라는 계급성을 띄게 된다. 이후로 ‘사판’이라는 말은 천시되고, 현실에서의 사판들은 당당한 자기정체성을 상실하고 만다. 그래서 ‘이판’을 의식하면서, ‘사판’은 스스로의 일에 당당함을 내세우지 못하고 말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현상은 ‘취척=사판 vs 비구=이판’이라는 등식에서 각기 ‘취척’과 ‘비구’를 약분(約分)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온다. ‘사판 < 이판’이 굳어져 버린 것이다.

이제 언어의 타락을 가져온 그 현실을 괘호 속에 넣고서, 그 말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복원(復元)의 길일 터이다. 과연 사판은 이판보다 열등한가? 그렇지 않다.

이판과 사판은 공존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사판이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일조차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화엄의 세계가 그렇다. 이판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궁극적인 ‘사사(事)’ 무애의 경지에서는 ‘이’라는 말은 사라진다. ‘이’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로 향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기 때문이다.

### ‘사판’의 복권

우리에게 비극적 언어인 ‘사판’을 복권시키려는 명령은 “법화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화성유품(化城喻品)’에서이다. 대동지승어래라는 부처님께서 출현하셨을 때의 일이다. 이 부처님을 찬탄하

고 공양하기 위하여 오백만억의 국토로부터 범천왕(梵天王)들이 총출동한다.

가히, 대동지승어래가 출현하셨다는 소식에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다. 그들이 ‘하던 일’은 ‘깊은 선정’을 즐기는 일이었다. ‘왕’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 세계(梵天)의 왕들이므로 깊이 선정을 즐기는 것 외에 무슨 할 일이 또 있었겠는가.

이 이야기에서, 깊은 선정을 즐기는 것은 ‘이판’을 의미한다. 그런 ‘이판’을 내팽개치고 달려가야 할 만큼, 그보다 더욱 소중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부처님을 공양하는 일이다.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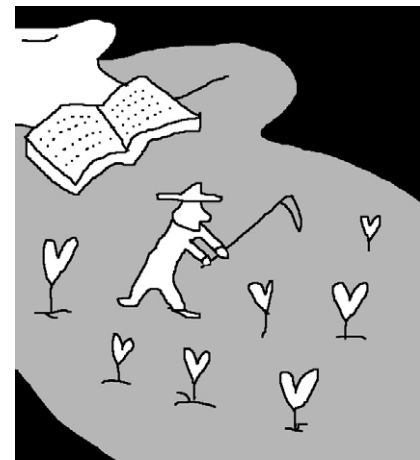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일’은, 바로 ‘사판’이다. 공부를 하는 것은 이판이고, 일

을 하는 것은 사판이다. 공부, 그것은 왜 하는 것일까? 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공부에 힘쓰는 것이(이판)는 아직은 과정일 뿐이지, 궁극의 목적이 아니다. 하던 공부를 놓아두고서라도 달려가야 할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일이다. 이판이 아니라 사판이다. 이판은, 언젠가는 다시 사판으로 나와야 한다. 물론, 사판 역시 이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판의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이러한 정의(定義)야말로, 사건으로부터 오염되기 전의 본래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본래 의미를 다시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타락한 언어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동안 현실 안에서 불교의 역할이 미미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가치의 전도(顛倒)가 있었음을 생각할 때, ‘사판’의 복권은 우리 불교의 현실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들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제분양)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교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인상깊은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길게 하여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하여,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택선원이나 강원스님에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제조원: 구암식품  
☎ 농협: 227027-51-090791 (예금주: 남궁성균) · 식품제조업: 대구 복제00619호

##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 희 소 식

#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 화제 집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

##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성 등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